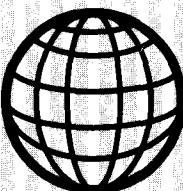


# WORLD

# POULTRY NEWS



# 해외양계 뉴스



세계

## 미국의 10년후 육계산업 분석

영국 런던에서 최근 개최된 2002년 유럽·세계가금시장 회의에서 미국의 10대 닭고기 회사를 대상으로 10년 후 변화되는 미국의 육계산업을 조사한 내용이 공개되었다. 미국 전체 닭고기 물량의 72%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회사들은 앞으로 10년 후의 미국 육계산업은 '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, 수출이 중국시장으로 초점이 맞춰지며, 대부분의 회사들이 구조조정(합병)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차후 10년동안 2~3% 증가 양상을 보일 것이다(과거 20년간 평균 5% 성장). ② 미국의 5대 닭고기 회사가 전체물량의 71%를 장악할 것이다(2001 현재 55%). ③ 닭고기 수출은 현재와 같은 20%를 유지할 것이다. ④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수출공략 시장이 될 것이다. ⑤ 닭다리의 수출 비중이 90%에서 85%로 낮아질 것이다.(PI)

계란 과잉으로 인한 생산계획에 대한 반응

일본 농림수산성은 계란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대책방안으로 지난 9월말 계획생산추진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이에대한 생산자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.

설문내용에서 앞으로 계획생산을 할 경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보완할 경우 계획생산이 필요하다(52%)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현행의 계획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(11.7%), 계획 생산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(10.8%), 불필요하다(14.7%), 모른다(9.2%), 무응답(1.6%)로 각각 나타났다. 또한, 계획생산을 위해 생산자들이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는 생산계획 준수가 56.4%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, 생산자의 책임하에 추진(32.7%), 상호감독 강화(5.6%), 모른다(3.1%), 무응답(1.3%), 기타(0.9%)로 나타나 대부분 계획생산의 필요성을 느끼며, 생산자 책임하

에 계획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.(鶴鳴新聞)

## 미국

### 가금류 등 육류 2,740파운드 리콜

미국의 유명 식품업체로 알려진 필그림프라이드는 14일 펜실베니아의 식품가공업체에서 생산된 가금류 식품에서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며, 이 업체에서 생산된 육류 2,740만 파운드를 리콜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는 지난 1997년도 2,500만개의 햄버거를 리콜한 허드슨사 보다 많아 미국역사상 최대 육류 리콜 사례로 기록되었다. 필그림사는 당초 29만파운드만을 리콜하려 했지만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 식품공장에서 리스테리아균의 징후가 있어 리콜육류량을 늘리고, 식품공장을 폐쇄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.(metro)

## 태국

### 2005년까지 100억개 계란 소비

태국이 오는 2005년까지 년간 100억개의 계란을 소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. 태국의 금년도 소비량도 82억개로 지난해보다 3%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았으며, 이 같은 전망은 1일 10만개의 계란을 난분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완성단계에 들어갔으며, 각 관련 단체에서 소비창출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는데 기인할 수 있다. 현재 태국에는 1개의 분말 공장과 2개의 액란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계란 홍보

의 일환으로 '아미노산의 소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루에 250mg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'고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(AP)

## 인도네시아

### 값싸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 착수

인도네시아의 양계산업이 감보로에 의한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새로운 질병차단연구계획(CSIRO)을 세워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. 이같은 계획은 지난 1991년 인도네시아를 휩쓸고 지나간 감보로 피해 이후 지금까지도 각 농가에서 감보로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취해진 조치이다. 이 연구의 책임자인 Jagoda 박사는 연구중인 새로운 IBD 백신이 개발될 경우 양계농가들에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하고 호주의 연구기관인 ACIAR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(WP)

## 독일

### 닭고기 수입 급상승

지난해 독일의 닭고기 수입이 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 독일이 수입한 지난해 닭고기 수입은 52만5천톤으로 전년에 비해서 36%까지 급상승하였으며, 닭고기 생산량도 53만4천톤에서 5만5천톤으로 큰폭 증가하였다. 1인당 소비량도 8.2kg에서 10kg으로 상승하였으나 이같은 원인으로 닭고기 자급률은 79.5%에서 66.8%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(PI)